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국화축제가 끝난 자리에 국화는 향기를 품고 있었다. 붉고, 희고, 노란, 국화꽃으로 만든 조형물이 펼쳐지는 곳에 산책했다. 바람은 적당했으며 하늘은 높아 푸른 하늘 사이에 쪽빛 감이 주렁주렁 가을하늘에 수를 놓고 있었다.

넓은 들판에 국화꽃으로 모양을 만든 사과 조형물이 놓여 있었다.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과 모양을 한 포트 존은 그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장소였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에 바람은 적당히 불어 발걸음이 가벼웠다.

국화꽃 향내음을 맡으며 늦가을 들판을 걷는 시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좋다.

경험의 소비가 행복했다는 답은 57%였으며, 소유의 소비가 행복했다는 34%로 나타났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벤 보벤의 연구를 보더라도 소유의 소비보다는 경험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한다.

소유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시간이 행복감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나눔의 소비다.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 피는 꽃은 울림이 있다.

최근,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다. 주인공 길체는 사랑한 남군님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저를 만날 때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라고 묻는다. 이에, 장현은 “분꽃 피는 소리가 들렸다.” 고 한다. 분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다니...

분꽃이 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바람 소리를 들었을까? 물이 흐르는 소리일까? 분꽃 피는 소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꽃 피는 소리가 들렸다는 언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를 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반지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쁨의 배가 된다.

연말이 다가오자 DK협회는 뉴트

나눔의 소비

로 문화트렌드에 합류하기 위해 트롯 콘서트를 관람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연말 모임을 회식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공연을 보고 남은 경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자신을 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기쁨은 배가 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는 그동안 고마웠던 분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인간은 물질의 소유도 중요하다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다.

겨울의 입구에 들어서자 M에게 연락이 왔다. 얼굴 보자는 것이다. 주말 점심에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O는 스마일 마크가 들어 있는 양말을 준비해 활짝웃음을 지으며 주

변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B는 손으로 직접 뜯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 수 있는 실을 가져왔다. 집마다 크리스마스가 트리가 되어 겨울을 환하게 할 것이다.

K는 농사를 지은 배추와 무를 가져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L은 정성을 다해 지은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어왔다. 연말이 되어 만남의 시간에 마음을 넘어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되었다.

그날 돌아와 K와 L의 무와 청국장 국을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다. 몽글몽글한 콩이 내 입을 통해 들어와 마음도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나를 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은 보람이 있으며 기쁨이 배가 된다.

나눔의 소비를 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다.

연말이다.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은 ‘돈을 어떻게 쓸 때 행복할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더 행복한 것은 가족과 함께 지출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한다.

보너스를 받아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을 때 기쁨의 배는 더 크다. 일명 사회적 소비다. 돈의 액수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는 소비의 지출은 행복감은 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치료라는 말이 생겼나 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롭고 힘들 때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도 건강한 마음 만들기 에 한 부분이다.

연말이다. 더 행복한 소비를 위해 타인을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는 나눔을 위한 소비가 필요할 때다. 물질의 소유를 넘어 마음을 전달하는 겨울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분꽃이 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명 살리는 작은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이 개 현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출·퇴근 길 꼭 막힌 도로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차나 화재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시민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곤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때문이다.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은 5분 이내로 초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인명 구조 또한 어려워져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4~6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혹시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를 본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은 양보운전 요령으로 여러분도 소방차 길 터주기로 생명을 살리는 작은 기적에 동참 할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약속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다.

도로상황별 소방차 양보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

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

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도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의 시작 소방차 길 터주기로 시작합시다.”

스쿨존 안전 운전, 의무이자 필수



김 창 희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한 지역으로 아이들이 학교로 통학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이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해, 한 달에 두 건 꼴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광주에서는 80명, 전남에서는 74명의 어린이가 다쳤으며 숨진 어린이는 없었다.

스쿨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의 부주의이다.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많이 보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는 지역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그 특성상 주의력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성인보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 있다가 주변을 확인하지 못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

스쿨존 사고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준수뿐 아니라 차보다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광 고 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 · 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레...010-8597-0053
부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